

주께서 내게 얼굴 비취시기를 원하노라 외

©아세르 인터레이터, 2009년 3월 1일

주께서 내게 얼굴 비취시기를 원하노라

신약에서 예수아의 얼굴이 해처럼 빛난다는 구절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변화산에서입니다. 마 17:2 -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예수아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곳일지 맛을 보여주셨습니다. 주께서 기도하실 때 (눅 9:27-29), 그 얼굴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주께서는 의지로 당신 안의 영광의 빛의 밝기를 높이기도 낮추기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몸도 그와 같이 작용할 것입니다 (빌 3:21).

두 번째는 요한이 받은 계시입니다. 계 1:16 - 얼굴은 해가 세차게 비추는 것과 같았습니다. 예수아께서는 요한에게 계시하시기를, 족장들에게 주님의 천사로 나타났던 존재가 당신이시라고 하셨습니다(단 10:5, 단 7:13, 겔 1:26, 출 24:11 등).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영화로운 얼굴을 보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했을 때, 그와 하나님 사이엔 구름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구름을 치워 달라고 부탁했으나, 주께서 거절하셨습니다. 그가 볼 수 있던 최선은 주님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출 33:12-23).

[주: 출 33:14-15의 대부분의 번역은,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과 동행하기를 구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어는 “임재”가 아니라 “얼굴”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길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임재는 이미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로부터 가립니다 (사 59:2). 에덴 동산에서 첫 범죄가 있기 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너무나 사로잡혀 있어서 자신들이 벗은 줄도 몰랐습니다. 낙원에서, 우리는 다시 그분을 직접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죄성을 가지고 영광의 능력을 본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기에, 예수아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보통 인간의 몸으로 그 영광을 잠시 밀어두신 채 오셨습니다 (빌 2:6-8). 주께서는 구약에서도 족장들과 대화하고자 하실 때면 보통 인간의 형태로 나타나셨습니다 (창 18:2, 창 32:24, 수 5:13, 사 13:21 등).

[주: 예수아께서 다메섹 도상의 사울에게 영광으로 나타나셨을 때, 주께서는 은혜로 사울의 눈에 비늘 (최초의 콘택트 렌즈?)을 끼워 그 눈이 “녹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행 9:18).]

모세가 주님의 얼굴의 영광을 직접 본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영광의 임재 가운데 충분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은 발광하고 있었습니다. 영광이 외부로부터 그의 피부 속으로 흡수되었기 때문에 단지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일시적 영광이 너무나 압도적이라 그는 사람들이 도망하지 않도록 얼굴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출 34:35).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을 직접 보지 못했다면, 그리고 모세의 얼굴의 영광이 단지 외부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었다면, 그 영광이 총만해지고 내면으로부터 발광하며 영원히 지속될 때는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고후 3:11 - 잠시 있다가 사라지게 하릴 것인 영광을 임하셨으며, 길이 남는 것은 더욱 영광 속에 있을 것입니다.

시내 산 위 모세의 얼굴 이야기를 볼 때 부활 때에 우릴 위한 엄청난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장래 영광의 보이지 않는 영적 능력이, 주를 묵상하는 우리의 마음에 오늘날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후 3:18 - 우리는 모두 마음을 벗어 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며,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육체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으로 말입니다 (엡 1:18). 주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쳐다볼 때 우리는 조금씩, 그러나 점점 강력하게 그분의 형상을 닮아 변화됩니다. 그러면 그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아의 빛나는 얼굴에 있습니다.

고후 4:6 - 메시야 예수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각했습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몸은 동일하지만 영광은 축적됩니다. 여러분이 현재 내면에 소유한 것이 부활 시에 외면에 드러날 것입니다 (고전 15:41-42 참고). 스테반이 순교 당했을 때, 그 내면의 영광이 밖으로 빛을 발하여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었습니다 (행 6:15).

하나님의 영화로운 얼굴을 직접 바라보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감춰지는 것보다 더 큰 형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 속으로 전이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아론의 축복의 비밀입니다.

민 6:24-26 - 각에게서 너에게 복을 각시키고...각에게서 너를 향한 영광으로 대항시키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며 각에게서 너를 고이 받으시게서, 너에게 평화를 각시키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로 축도의 진수, 곧 대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이 땅의 대 제사장은 진정한 대 제사장 메시아의 예표였습니다. 아론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취는 것은 별로 좋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아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친밀감, 그리고 능력의 거룩한 '다운로드'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 위치한 저희 공동체에서 매주 아론의 축복을 하는 이유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취주시길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연정

현재 시점까지, 리브니는 네타냐후와 리버만의 연정 구성 제안을 거절해 왔습니다. 이로써 연정이 불안해지고 초 정통과 정당들의 개입이 있을 위험이 생겼습니다. 연합된 정부를 위한 마지막 협상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타냐후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통과 정당들의 압정과 부패로부터 보호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Shaul Byunghyun Jo